

브리프: 평화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함의

평화와 인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. 오히려 서로 보강한다.

1.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는 인권을 위협한다.

- 유엔 총회는 1984년 평화권을 선언했다. 전쟁 없는 삶이야말로 “나라의 물질적 복지와 발전, 진보를 이루고 유엔이 선언한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실현하는 데 가장 우선해야 할 국제적 전제 조건”이라고 밝혔다.
- 아직 끝나지 않은 한반도 전쟁 상태는 중요한 자원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 기보다 군비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한다.
-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는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한다.
-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로 인해 정부가 분쟁 재발의 위험성을 명분 삼아 전 시 무력 사용권 확대를 주장하며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.

2. 압박은 인권 증진에 실패했지만 평화는 인권 증진에 성공할 수 있다.

- 수십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대북 군사 위협, 파괴적인 제재, 외교적 고립이 인권 보호 조치를 진전시켰다는 증거는 없다.
- 북한은 자주를 극대화하고 자립과 국민 단합을 무엇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이러한 고립 정책에 적응해왔다. 전쟁 상태의 지속은 이러한 태도를 정당화할 것이다.
- 극심한 고립과 북미간 긴장으로 인해, 인권 보호조치 향상에 필요한 인권현황 파악이나 정부 차원 또는 민간 차원의 상호 신뢰구축이 어렵게 되었다.

3. 어느 국가도 강요나 무력으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할 수 없다. 반면에 해가 아닌 도움을 주는 가능한 모든 것은 해야 한다.

- 미국은 인권이 열악한 여러 국가들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. 평화적 관계가 이 국가들에 대한 선물이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 평화적 관계는 보편적 대세이며, 재앙적인 폭력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누구라도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면 이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.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인권문제에 더 심층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.

이 브리프는 국제 페미니스트 캠페인, ‘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전쟁 종식, 코리아 피스 나우!’ (Korea Peace Now!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)가 2021년 2월에 발간한 보고서 “평화로 가는 길: 한반도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”의 “제3장: 평화협정이 인권에 미치는 함의” 영문 브리프를 번역한 것이다. 영문 브리프와 보고서는 KoreaPeaceNow.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Women Mobilizing
to End the War
KOREA PEACE NOW